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11.27.(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11.27.(금)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	044-300-7182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 국내 복귀기업 실제 투자일정과 예산집행 시기 적절성 확인 당부

전의면 투자 예정 기업 1곳…지원 대상과 실제 투자 계획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투자유치단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새로 편성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35억원의 지원 대상과 투자 계획, 보조금 사용처를 점검했다.

2027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35억원은 국비 26억 2,500만원과 시비 8억 7,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편성액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1차 보조금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투자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세종시에 실제로 투자할 기업이 확인됐는지 거듭 물었다. 35억원을 신규 편성한 만큼 어느 기업이 세종시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투자유치단은 전의면에 투자를 계획한 기업 1곳이 2026년 1월 산업통상부로부터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보조금 규모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투자 지원인지, 국내 정착을 위한 보조금 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설명서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액의 70%는 착공 후, 나머지 30%는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 기업의 실제 투자 일정과 예산집행 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